



Louis Jadot Chevalier-Montrachet  
Grand Cru 'Les Demoiselles'

## 루이자도 슈발리에 몽라세 그랑 크뤼 레 드무아젤

몽라세에 버금가는 뛰어난 맛과 향의  
최고급 화이트 와인



+ 당도 1 2 3 4 5

+ 산도 1 2 3 4 5

+ 바디 1 2 3 4 5

Type 화이트 와인

Country / Winery 프랑스 > 부르고뉴 / 루이자도

Grape Variety 샤르도네 100%

Capacity 750ml

Food Matching 흰살 생선, 화이트 트러플을 가미한 관자 요리, 랍스터, 그릴에 구운 푸아그라, 송아지 브레이즈

### Information

루이자도의 슈발리에 몽라세는 매우 한정된 수량만을 생산하며, 종종 몽라세에 버금가거나 더 뛰어난 집중도, 복합적인 맛과 향을 만들어낸다. 잘 익은 과일의 풍부한 맛과 향, 명쾌한 산미와 벨벳처럼 부드러운 우아한 질감, 토스티한 여운이 최고급 화이트 와인의 정수를 보여준다.

15~18개월 오크 배럴에서 숙성했으며 15~20년 숙성해 마시는 것이 좋다.

### Tip

| 슈발리에 몽라세는 뵈리니 몽라세 마을의 윗쪽 언덕, 샤사뉴 몽라세 마을과의 경계에 위치한 그랑 크뤼 포도밭이다. 바로 아래쪽에 맞닿은 몽라세와 함께 부르고뉴의 가장 뛰어난 화이트 산지 중 하나로 꼽힌다.

루이자도의 '드무아젤' 포도밭은 1913년, 와이너리 설립자의 자손이자 경영자였던 Louis Jean Baptiste Jadot가 두 명의 여동생들로부터 사들인 포도밭이다. '레 드무아젤'은 프랑스어로 '아가씨들'을 뜻한다. 배수가 잘 되고 온기를 잘 보존하는 백악질 토양으로 구성된 남동향 포도밭이다.